

# 농촌여가 시장의 재방문 선택요인 분석 -부래미, 다랭이, 벧가리지역을 대상으로-

윤희정 · 임승빈\*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An Analysis on the Re-visitation Choice of Rural Leisure - Focused on Buraemi, Daraengi, Byucgari region -

Yun, Hee-Jeong · Im, Seung-Bin\*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D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l Univ.

ABSTRACT : Recently, rural leisure by urban dwellers has been recognized as a catalyst for regional development or restoration. The federal government implemented several regional planning policies attempting to address this phenomenon in the late nineties. However, most of these policies focused on supply-centered planning, which caused a diverse set of problems relating to the sustainability and economic validity of the planning. Instead, this study focuses on the re-visitation one of the demand variables, with the intention of analyzing the character of rural leisure demand and its re-visitation choice attribute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 of current rural leisure demand, and develops functional equations about urban people who visit rural areas, using logit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Urban people are visiting rural areas from nearby cities or metropolitan areas that are within 3 hours driving distance, and over 80% of rural visitors are one-day visitors. Therefore, most of their visitation activities should be understood as rural leisure, including rural tourism. In addition, the likelihood of the rural tourist to make a return visit is influenced by their transportation means, product purchasing, staying period and travel time. The results of such rural leisure demand can provide information for regional planning strategies, such as selection of target market, type of market segments, improvement of recognition level, activity program price, facility and space planning, produce sale and connection with tour site.

**Key words** : Rural Tourism, Rural Leisure, Re-visitation Choice, Tourism Demand

### 1. 서 론

여가공간에 있어 방문객들의 재방문 여부는 수요함수의 종속변수인 수요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영수익 및 공간 수용력과 직결되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방문은 대상지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상지에 대한 기대, 과거의 다른 경험, 사회적 규범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Mazurskey,

1989). 또한 재방문은 공간의 서비스와 같은 편익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방문자와 운영주체간의 인적관계 등에도 영향을 받으며(차동욱, 2003), 대상지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체험과도 밀접하다(Moscardo, 1986).

농촌여가 시장의 재방문 역시 지속적으로 도농교류를 실천하는 매개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행마을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방문객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은 타 대중관광지와는 다른 독특한 환경이나 문화체험을 중시하며 이는 방문객들의 충성도(loyalty)나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쳐 농촌여가 시장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Yun, Hee-Jeong  
Tel: 031-299-0514  
Email: hjyun@rda.go.kr

그러나 농촌여가 시장에 있어 재방문은 관광객의 방문특성 분석의 일환으로 일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며(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3, 2004a), 이들 연구는 대부분 재방문 선택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라기보다 방문객의 재방문 여부만을 조사한 단편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여가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방문객들이 재방문 여부를 선택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방문 선택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농촌여가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 II. 재방문 선택모형

농촌여가 관련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의 개념정의나 관련사례 비교·분석, 자원요소 및 유형구분과 관련된 연구로부터 수요 및 공급, 지역계획 및 개발, 참여동기 및 태도, 가치평가 등의 연구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윤희정, 2007). 농촌관광객의 방문특성 및 수요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므로(김현과 이희찬, 2004; 농림부, 2005;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3, 2004a; 윤희정과 임승빈, 2004, 2008; Fleischer and Tchetchjik, 2005; Hong et al., 2006; Pina and Delfa, 2005), 본 연구에서는 재방문 선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중심으로 관련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여가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인 모형은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여행비용모형(TCM: travel cost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중력모형<sup>1)</sup>은 목적지와 출발지의 속성과 두 지역간의 거리변수를 사용하여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등의 수요분석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이주희와 한상열, 2004). 그러나 이 모형은 주체인 수요자의 과거경험, 태도, 지식, 가치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여행비용모형<sup>2)</sup>은 여행비용이 목적지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가정하며, Hotelling(1947)과 Clawson and Knetsch(1966)의 연구를 시초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모형은 국립공원과 같이 시장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준사유재 혹은 중간형자원의 수요분석이나 가치추정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거나(조광익과 손대현, 1999; 김사현과 박세종, 2001; 김사현과 김재영, 2002; 김재석과 김재영, 2002), 수요자의 특성과 시간, 체재기간, 기회비용, 접근속도, 접근환경 등이 동일하고, 서로 경합하지 않는 단일목적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사현, 2003). 또한 이

모형은 비용이 많이 소비되지 않는 여가행위나 인지도가 낮은 대상지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농촌여가 관련 분석에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이상의 두 모형 이외에 비선형 회귀모형의 일종인 로짓모형이 여가수요모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Seddighi et al., 2002; Han et al., 2006). 이 모형이 부각된 이유는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해당 지역의 방문여부를 결정하는 이산선택(discrete choice)과정과 유사하며 모형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게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짓모형은 경제, 교통, 도시 및 지역, 여가 및 관광, 주택 등 그 활용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대부분 '선택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도시 및 지역분야에서 로짓모형은 입지 및 규모 선택(최열과 김종성, 2003; 최열과 유숙향, 2005), 농산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지적정성 평가지표 선택(황희연과 오용준, 2004) 등에 활용되었으며, 여가 및 관광 분야에서는 도시민의 당일 여가시설 선택(홍성권, 1994), 당일 여가활동 선택(임형순, 1998), 공원 선택행동(김성진과 안건용, 1995), 목적지 선택(Hong et al., 2006), 해외여행자의 관광유형 선택(김영우, 2005), 농촌관광의 숙박유형 선택(Pina and Delfa, 2005)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처럼 로짓모형은 특정 공간의 선택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재방문 선택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고 적용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변수선정

로짓모형의 종속변수는 방문객의 재방문 의도(해당지역을 다시 방문할 의도가 있는 경우=1, 없는 경우=0)이며, 독립변수는 여가시장의 수요 및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연령, 가족수, 소득수준, 여가비용, 방문비용, 거리 및 시간, 목적지 다양성 등(김사현, 2003; 조유현과 이정인, 2003; Torkildsen, 1992)을 종합하여 12개 중분류 변수로 1차 구분한 후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세부변수를 도출하였다.

중분류 중 농촌지역 연관성 변수는 농촌거주 경험이 농촌방문 횟수와 밀접하다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3, 2004a, 2004b)의 연구결과에 따라 농촌거주 경험유무와 거주연수로 세분하였으며, 가족 및 친지 유무는 연구자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농촌지역 방문경험 변수는 농촌지역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횟수 및 경험일수가 증가하며(농촌자원개발연구

농촌여가 시장의 재방문 선택요인 분석

Table 1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구분	중분류(세부변수)	조작적 정의	척도	측정 방식	단위	변수입력방법	
중속	해당지역 재방문 의도	◦향후 1년간 방문농촌지역의 재방문 의도	명목	폐쇄형	-	◦1: 있음, 0: 없음	
독립	농촌지역 연관성	농촌거주 경험유무	◦과거 농촌지역에 거주한 경험유무	명목	폐쇄형	-	◦1: 있음, 0: 없음
		농촌거주 연수	◦과거 농촌지역에 거주한 연수	비율	개방형	년	◦거주연수(년)
		농촌거주 가족·친지유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지 유무	명목	폐쇄형	-	◦1: 있음, 0: 없음
	농촌지역 방문경험	농촌방문 경험유무	◦과거 다른 농촌지역의 방문경험 유무	명목	폐쇄형	-	◦1: 있음, 0: 없음
		농촌방문 경험횟수	◦과거 다른 농촌지역의 연간 방문횟수	비율	개방형	가구	◦방문횟수(회/연)
	인지도	방문농촌 인지기간	◦방문한 농촌지역의 인지기간	비율	개방형	년	◦인지기간(년)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유무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유무	명목	폐쇄형	-	◦1: 참여함 0: 참여하지 않음
		참여프로그램 수	◦참여한 체험프로그램 수	비율	개방형	회	◦체험프로그램 수
	목적지 다양성	주변 관광지 방문유무	◦주변 지역 타 목적지 방문여부	명목	폐쇄형	-	◦1: 방문함 0: 방문하지 않음
		주변 관광지 방문수	◦방문한(합) 주변 관광지 수	비율	개방형	개소	◦주변 관광지 방문횟수
	경제성	월평균 소득	◦가족전체의 월평균 소득 합계	비율	개방형	만원	◦월평균 소득(만원/월)
		월평균 여가비용	◦가족전체의 월평균 여가비용 합계	비율	개방형	만원	◦월평균 여가비용(만원/월)
		농촌방문 비용	◦1회 방문시의 1인당 평균방문비용*	비율	개방형	만원	◦평균방문비용(만원/인)
		주변 관광지 방문비용	◦1회 방문시의 1인당 평균방문비용*	비율	개방형	만원	◦평균방문비용(만원/인)
		농산물 구매비용	◦지역 내에서 구입한 농산물 구매비용	비율	개방형	만원	◦농산물 구매비용(만원/인)
	만족도·목적	전체 만족도	◦방문농촌 방문시 전체 만족도	순서	5점 리커트	-	◦전체 만족도(5점)
		방문목적	◦방문농촌의 방문목적	명목	폐쇄형	-	◦1: 농촌체험활동, 0: 기타
	접근성	소요시간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편도소요시간	비율	개방형	시간	◦소요시간(편도시간)
		교통수단	◦승용차, 교통버스, 전세·관광버스	명목	폐쇄형	-	◦1: 승용차, 0: 기타
	동반자	동반자수	◦1회 방문시의 평균방문인원	비율	개방형	명	◦방문인원(인/회)
동반자 유형		◦방문시의 동반자유형	명목	폐쇄형	-	◦1: 가족, 0: 기타	
체류특성	체류기간	◦1회 방문시의 체류기간	명목	폐쇄형	-	◦1: 5시간(반나절)이상 0: 5시간미만	
	숙박유무	◦방문시 숙박유무	명목	폐쇄형	-	◦1: 숙박함 0: 숙박하지 않음	
농산물구매	농산물 구매유무	◦방문시의 농산물 구매여부	명목	폐쇄형	-	◦1: 구매함 0: 구매하지 않음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여, 남	명목	폐쇄형	-	◦1: 여성, 0: 남성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	비율	개방형	세	◦만 나이(세)	
	학력	◦고졸이하, 대학재학 및 졸업	명목	폐쇄형	-	◦1: 대학재학이상 0: 고졸이하	
	거주지	◦응답자의 현재 거주 장소	명목	개방형	-	◦1: 동일광역권내 0: 동일광역권외	
	직업	◦회사원, 학생, 공무원, 전문직, 주부 등	명목	폐쇄형	-	◦1: 회사원, 0: 기타	
	자녀유무	◦자녀의 유무	명목	폐쇄형	-	◦1: 있음, 0: 없음	

\* : 숙박, 교통, 식음료비, 체험비 및 프로그램 참가비 농산물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전체 방문비용을 방문인원으로 나누어 연구자가 재산정하였음

소, 2003, 2004a, 2004b), 여가만족이 과거 경험내용이나 과거 참여빈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김정근(1998), Seddighi et al.,(2001)의 연구결과에 따라 농촌방문 경험유무와 경험회수로 세분하였다.

프로그램 변수는 국내 농촌관광이 프로그램 중심형이라는 김남조(2004)의 연구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여부나 참여개수로 세분하였다. 목적지 다양성 변수는 농림부(2005), 김재석과 김재영(2002)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주변 관광지 방문유무와 방문수로 세분하였다.

경제성, 접근성 변수는 수요가 거리 및 시간, 방문비용 및 여가비용, 소득과 밀접하다는 김사현(2003), Torkildsen(1992), 조유현과 이정인(2003)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선정되었다. 이 중 경제성 변수는 농림부(2005)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구전체의 월평균 소득 및 월평균 여가비용, 지역방문 비용 및 타 목적지 방문비용의 4개 변수로 세분되었다. 접근성 변수는 소요시간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고속도로 등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sup>3)</sup>보다는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시간<sup>4)</sup>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한다(김사현과 박세종, 2001; 김사현, 2003).

동반자 변수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3, 2004a, 2004b)의 조사항목을 반영하였으며, 동반자 수와 동반자 유형 변수로 세분하였다. 체류특성 변수는 수요가 체류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Fleischer and Tchetchik, 2005), 농촌방문 시 농촌 민박객이 중요하다는(박덕병 등, 2004) 결과에 따라, 체류시간과 숙박유무 변수로 세분하였다. 그 외 만족도 및 목적, 인지도 변수는 만족도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을수록 참여 빈도가 증가한다는 Ragheb(1980), Riddick(1986)의 연구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농산물 구매변수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3, 2004a, 2004b)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일반현황은 농촌관광시 여성, 30-40대의 참여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농림부, 2003; Murphy and Williams, 1999) 성별 및 연령변수를 추가하였고, 학력 및 직업은 교육수준이나 직업이 여가행태와 밀접하다는 조유현과 이정인(2003)의 연구결과에 따라 세분하였다. 거주지는 해당 농촌지역의 방문객들의 거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하였고, 자녀유무는 여가행태가 가족중심형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국토연구원, 2002; 농림부, 2003; Torkildsen, 1992)에 따라 세분하였다(Table 1 참조).

## 2. 조사지역

조사지역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수상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는 경진대회의 심사기준이 농촌체험관광, 도농교류 기반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본 연구의 성격과 유사하며, 각 정부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계획 사업을 총괄하여 평가·선정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의 총 41개 수상지역<sup>5)</sup> 중 중복 지정된 4개 지역<sup>6)</sup>을 제외한 36개소에 대하여 웹사이트<sup>7)</sup>를 통해 예약 일정을 확인한 후, 추진위원장, 사무장, 이장, 총무 등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지속적 방문여부와 인원, 방문목적, 방문시기, 단체 및 개별방문객 여부 등에 대하여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이 때 지자체의 공무원 연수, 타지역 농촌주민의 견학성 방문, 하절기의 특정행사 방문은 지속적으로 도시민이 방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Table 2 참조).

Table 2 조사대상 지역의 사업내용 및 주요 자원

조사 지역	경진대회 수상내용	사업내용(시행부처)	표본 크기
이천 부래미	2003(장려) 2004(우수)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림수산식부) 정보화마을(행정안전부) 슬로우푸드마을(경기도)	53
태안 벗가리	2003(장려) 2005(대상)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51
남해 다랭이	2002(장려)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정보화마을(행정안전부)	52

## 3. 조사대상 및 분석

조사대상은 농촌을 방문하는 실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농촌방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실제 방문객이 아닌 도시민을 대상으로 과거 경험이나 미래 방문예정횟수 등을 조사하여(김현과 이희찬, 2004;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a), 많은 측정오차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는 3개 농촌지역을 방문한 도시민들로 국한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연수 참가자나 타지역의 농촌주민은 제외하고, 체험을 하고 있거나 귀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6년 09월 16일(토)부터 24일(일)까지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 일대일 면접방식(face-to-face interview)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장소는 각 지역의 체험장, 주차장, 파고라 등의 옥외 휴식시설, 주요 출입구 등의 공공장소이며, 결측치를 제외한 표본의 크기는 156부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설문분석은 빈도 및 평균(표준편차)을 기초로 하였으며, 많은 독립변수 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일차추출하기 위해 ‘부분 F검정(partial F-test)’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응답자 일반현황

전체 응답자 성비는 여성 55.8%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연령은 30대가 42.3%로 젊은층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재학 및 졸업자가 65.6%이며, 직업은 회사원 35.2%, 주부 및 학생 15.2%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무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53.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 특성을 보면 부래미 지역은 수원 35.0%, 서울 22.6%, 벗가리 지역은 청주 및 수원 25.5%, 서울 23.5%, 다랭이 지역은 부산 28.8%, 대전 9.6%, 김해 7.7%로 나타나, 동일 광역권내에서의 단거리 이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 2. 방문객의 농촌여가 특성(3개 지역)

농촌여가 특성은 선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빈도 및 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농촌지역 연관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농촌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1.9%, 평균농촌거주 연수는 5.6년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지가 있는 응답자는

64.1%, 과거 1년간 다른 농촌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8.8%, 다른 농촌지역 평균방문횟수는 1.5회로 나타나 실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은 농촌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61.5%이나 다랭이 지역의 참여비율이 낮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참여 프로그램수는 약 2개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참조).

목적지 다양성 중 주변 관광지 방문여부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부래미, 벗가리 지역의 응답자 84.9%, 80.4%는 해당지역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목적지로서의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랭이 지역은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76.9%로 경유지로서의 특성을 보였다. 주변 관광지 평균방문회수는 다랭이 지역 2.2개소, 벗가리 지역 2.3개소로 나타났다. 방문한 농촌지역의 평균인지기간은 다랭이 지역이 3.2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다랭이 지역이 지역계획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영화 및 광고 등의 대중매체에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체 응답자의 경제성 부분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여가비용은 356.5만원, 43.7만원, 해당 농촌지역 내에서의 평균지출비용은 3.1만원, 타 관광지에서의 평균지출비용은 4.9만원, 농산물의 평균구매비용은 3.5만원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Table 3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결과: 빈도(%)

구분		부래미	벗가리	다랭이	전체
성별	여성	34(64.2)	30(58.8)	23(44.2)	87(55.8)
	남성	19(35.8)	21(41.2)	29(55.8)	69(44.2)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연령**	20대	17(32.1)	20(39.2)	19(36.5)	56(35.9)
	30대	30(56.6)	18(35.3)	18(34.6)	66(42.3)
	40대이상	6(11.3)	13(25.5)	15(28.8)	34(21.8)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학력	고졸이하	7(14.0)	12(24.5)	10(19.2)	29(19.2)
	대학재학/졸업	30(60.0)	30(61.2)	39(75.0)	99(65.6)
	대학원이상	13(26.0)	7(14.3)	3(5.8)	23(15.2)
	계	50(100.0)	49(100.0)	52(100.0)	151(100.0)
직업*	1순위	회사원21(44.7)	학생17(37.0)	회사원18(34.6)	회사원51(35.2)
	2순위	주부 9(19.9)	회사원12(26.1)	전문직8(15.4)	주부, 학생22(15.2)
	3순위	학생등 2(4.3)	주부7(15.2)	주부6(11.5)	전문직21(14.5)
	계	47(100.0)	51(100.0)	52(100.0)	145(100.0)
자녀유무	있음	30(56.6)	30(58.8)	24(46.2)	84(53.8)
	없음	23(43.4)	21(41.2)	28(53.8)	72(46.2)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거주지*	1순위	수원18(35.0)	청주, 수원13(25.5)	부산15(28.8)	수원31(19.8)
	2순위	서울12(22.6)	서울12(23.5)	대전5(9.6)	서울26(16.7)
	3순위	안양, 용인5(9.4)	태안, 용인2(3.9)	김해4(7.7)	부산16(10.3)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 상위 3순위까지 표기함

\*\* : 개방형 자료를 범주형으로 표기함

Table 4 3개 지역 방문객의 농촌여가 특성(빈도 및 평균)

구 분		빈도(%)				
		부래미	벚가리	다랭이	전체	
농촌지역 연관성	농촌거주 경험유무	있음	23(43.4)	24(49.0)	33(63.5)	80(51.9)
		없음	30(56.6)	25(51.0)	19(36.5)	74(48.1)
		계	53(100.0)	49(100.0)	52(100.0)	154(100.0)
	농촌거주 가족·친지유무	있음	29(54.7)	33(64.7)	38(73.1)	100(64.1)
		없음	24(45.3)	18(35.3)	14(26.9)	56(35.9)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농촌지역 방문경험	농촌방문 경험유무	있음	29(54.7)	22(45.8)	39(75.0)	90(58.8)
		없음	24(45.3)	26(54.2)	13(25.0)	63(41.2)
		계	53(100.0)	48(100.0)	52(100.0)	153(100.0)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유무	참여하지 않음	6(11.3)	3(5.9)	51(98.1)	60(38.5)
		참여함	47(88.7)	48(94.1)	1(1.9)	96(61.5)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목적지 다양성	주변관광지 방문유무	해당농촌만 방문	45(84.9)	41(80.4)	12(23.1)	98(62.8)
		주변 관광지 방문	8(15.1)	10(19.6)	40(76.9)	58(37.2)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목적	방문목적	농촌체험 활동	41(77.4)	27(52.9)	-	68(43.6)
		기분전환 및 휴식	5(9.4)	6(11.8)	30(57.7)	41(26.3)
		농촌다운 경관감상	2(3.8)	9(17.6)	21(40.4)	32(20.5)
		전통문화	3(5.7)	1(2.0)	-	4(2.6)
		기타	1(1.9)	6(11.8)	1(1.9)	8(5.1)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접근성	교통수단	승용차	26(49.1)	4(7.8)	48(92.3)	78(50.0)
		교통버스	7(13.2)	2(3.9)	2(3.8)	11(7.1)
		전세/관광버스	20(37.7)	45(88.2)	2(3.8)	67(42.9)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동반자	동반자 유형	가족/친지	22(41.5)	18(35.3)	16(30.8)	56(35.9)
		친구/연인	3(5.7)	5(9.8)	23(44.2)	31(19.9)
		직장동료	11(20.8)	13(25.5)	6(11.5)	30(19.2)
		기타	16(30.2)	13(25.5)	1(1.9)	30(19.2)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체류특성	체류기간	3시간 이내	-	-	30(57.7)	30(19.2)
		3~5시간(반나절)	30(56.6)	24(47.1)	12(23.1)	66(42.3)
		하루 종일	15(28.3)	12(23.5)	1(1.9)	28(17.9)
		1박 2일	7(13.2)	15(29.4)	8(15.4)	30(19.2)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숙박유무	숙박함	7(13.2)	15(29.4)	8(15.4)	30(19.2)
		숙박하지 않음	46(86.8)	36(70.6)	44(84.6)	126(80.8)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농산물 구매	농산물 구매유무	구매	29(54.7)	20(40.8)	19(36.5)	68(44.2)
		비구매	24(45.3)	29(59.2)	33(63.5)	86(55.8)
		계	53(100.0)	49(100.0)	52(100.0)	154(100.0)
종속변수	해당지역 재방문 의도	있음	49(92.5)	25(49.0)	37(71.2)	111(71.2)
		없음	4(7.5)	26(51.0)	15(28.8)	45(28.8)
		계	53(100.0)	51(100.0)	52(100.0)	156(100.0)
구 분		평균(표준편차)				
		부래미	벚가리	다랭이	전체	
농촌지역 연관성	농촌거주 연수(연)	3.6(5.9)	5.6(7.9)	7.3(10.8)	5.6(8.6)	
농촌지역 방문경험	농촌방문 경험횟수(회/연)	1.2(1.9)	1.6(3.6)	1.8(2.2)	1.5(2.6)	
인지도	방문농촌 인지기간(년)	1.1(0.9)	0.4(0.5)	3.2(8.6)	1.6(5.2)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수	1.9(0.3)	1.9(0.2)	1.0(1.0)	1.6(0.5)	
목적지 다양성	주변 관광지 방문수	1.5(0.6)	2.3(1.3)	2.2(1.2)	2.2(1.2)	
경제성	월평균 소득(만원/가구/월)	368.6(175.3)	368.7(144.3)	333.7(197.8)	356.5(174.4)	
	월평균 여가비용(만원/가구/월)	42.8(37.8)	53.4(55.8)	36.6(34.1)	43.7(43.1)	
	농촌방문비용(만원/인)	2.5(1.3)	2.8(2.5)	4.3(3.3)	3.1(2.5)	
	주변 관광지 방문비용(만원/인)	3.4(0.7)	6.9(12.2)	4.8(3.7)	4.9(5.3)	
	농산물 구매비용(만원/인)	3.2(2.2)	4.0(2.8)	3.7(2.4)	3.5(2.4)	
만족도	전체 만족도(5점 리커트)	4.3(0.6)	3.7(0.7)	3.7(0.7)	3.9(0.7)	
접근성	소요시간(편도)	1.8(0.6)	3.0(0.8)	3.5(1.3)	2.8(1.2)	
동반자	동반자수	14.8(15.9)	35.1(25.3)	4.9(6.0)	18.1(21.5)	

\*: 개방형 자료를 범주형으로 표기함

방문목적은 살펴보면 다양한 농촌체험활동을 즐기기를 위한 빈도가 43.6%로 가장 높았으며, 기분전환 및 휴식 26.3%, 농촌다운 경관감상이 20.5% 이나 지역별 자원현황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의 전체 방문만족도는 부래미 4.3, 벧가리 3.7, 다랭이 3.7로 나타나 부래미 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항목 중 교통수단의 이용빈도는 승용차 50.0%, 전세 및 관광버스 42.9%로 나타났고, 평균 소요시간은 2.8시간으로 부래미 지역 1.8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친지 35.9%, 친구·연인 19.9%, 직장동료 19.2%로 나타났으며, 평균 동반자 수에 대해서는 벧가리 지역이 35.1명으로 가장 높아 대부분 단체방문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랭이 지역은 4.9명으로 개별방문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참조).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3~5시간 42.3%, 3시간 이내 19.2%, 하루 종일 17.9%, 1박 2일 19.2%로, 당일방문객 비율이 80.8%, 3~5시간미만의 반나절 이내 방문객비율이 61.5%로 나타났다. 숙박유무에 대해서는 3지역 모두 숙박하지 않는 비율이 80% 내외로 대부분 당일방문객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다랭이 지역은 3시간 이내 체류비율이 57.7%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의 부족, 높은 주변 관광지 방문빈도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농산물 구매유무에 대해서는 부래미 지역만이 응답자 중 과반수이상인 54.7%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재방문의도는 부래미 지역이 92.5%로 가장 높았고, 벧가리 지역이 4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4 참조).

### 3. 재방문 선택요인

#### 1) 독립변수 추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독립변수를 1차로 추출하기 위하여 입력방법을 이용한 ‘부분 F-검정(partial F-test)’을 이용하였다. 이는 기준이 되는 독립변수를 선정 후 다른 변수를 모형에 차례로 넣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준변수의 영향을 통제 한 상태에서 추가변수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김영석, 2002). 먼저 기준이 되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비교적 상관성이 높은 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해당지역 농촌방문비용( $r=-0.364$ ,  $p=0.016$ ), 방문목적( $r=0.160$ ,  $p=0.046$ ), 전체 만족도( $r=0.267$ ,  $p=0.001$ ), 교통수단( $r=0.241$ ,  $p=0.002$ ), 소요시간( $r=-0.220$ ,  $p=0.006$ ), 참여 프로그램수( $r=-0.293$ ,

$p=0.005$ ), 동반자수( $r=-0.312$ ,  $p=0.000$ ), 체류기간( $r=0.213$ ,  $p=0.008$ ), 농산물 구매유무( $r=0.331$ ,  $p=0.000$ )의 9개 변수가 유의수준 1%, 5%이내에서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상관계수가 중상이상인 체류기간 항목으로 기준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준 독립변수를 로짓모형에 단독으로 투입하였을 경우  $\chi^2$  값<sup>8)</sup>은 7.417( $\text{sig.}=0.006$ )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준으로 타 독립변수를 추가하였을 경우  $\chi^2$  값의 변동 추이를 통해 추가변수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이 때 추가변수의  $\chi^2$  값 변동기준은 기준 독립변수만 투입하였을 경우의 적합도 7.417보다 30%이상<sup>9)</sup> 증가하는 변수, 즉 9.642이상의 변수로 추출하였다. 일차추출 결과 재방문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독립변수는 기준 독립변수인 체류기간, 농촌방문 경험횟수(9.784), 참여 프로그램 수(16.778), 주변 관광지 방문 수(12.589), 농촌방문 비용(10.587), 전체 만족도(17.191), 소요시간(16.099), 교통수단(20.386), 동반자수(21.080), 동반자 유형(10.660), 농산물 구매유무(22.468)로 나타났다.

#### 2) 로짓모형의 적합도 검정

상관분석 및 부분 F-검증에 의해 추출된 11개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여 로짓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로짓모형의 적합도는 우도비 검증(likelihood ratio test)과 호스머-레머쇼 적합도(Hosmer Lemeshow goodness of fit)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2\text{LogL}$  값은 136.743으로 나타났으며,  $\chi^2$  값은 47.524, 자유도<sup>10)</sup>는 4, 유의확률은 0.000 ( $\alpha = 0.05$ )이므로 적합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호스머-레머쇼 검증결과 역시  $\chi^2$  값이 8.989, 유의확률이 0.343( $\alpha = 0.05$ )<sup>11)</sup>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재검증 되었다(Table 5 참조). 이상의 결과에 따라 모형의 결정계수  $R^2$ <sup>12)</sup>는 0.258로 나타났다.

Table 5 로짓모형의 적합도 검정

구분	우도비				호스머-레머쇼		
	df	$\chi^2$	sig.	-2LogL	df	$\chi^2$	sig.
모형	4	47.524	0.000*	136.743	8	8.989	0.343**

\*:  $p < 0.05$ , \*\*:  $p > 0.05$

#### 3) 재방문 선택요인

농촌지역을 방문한 도시민들의 재방문 선택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교통수단( $x_1$ ), 농산물 구매유무( $x_2$ ), 체

류시간( $x_3$ ), 소요시간( $x_4$ )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별 유의확률이 모두 0.05보다 작아 유의성이 확보되었다(Table 6 참조).

$$\text{Logit}(y) = 1.131 + 1.840x_1 + 1.543x_2 + 1.522x_3 - 0.707x_4 \quad (X^2 = 47.524)$$

( $y$ =재방문 선택,  $x_1$ =교통수단,  $x_2$ =농산물 구매유무,  $x_3$ =체류시간,  $x_4$ =소요시간)

Table 6 재방문 선택함수

구분	B	Wald	sig.	Exp(B)
상수(Constant)	1.131	4.530	0.033*	3.100
교통수단( $x_1$ )	1.840	13.646	0.000**	6.299
농산물 구매유무( $x_2$ )	1.543	10.089	0.001**	4.678
체류시간( $x_3$ )	1.522	8.476	0.004**	4.580
소요시간( $x_4$ )	-0.707	14.098	0.000**	0.493

\*:  $p < 0.05$ , \*\*:  $p < 0.01$

이상의 결과에 따라 실수요자의 재방문 선택여부는 교통수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를 고정하였을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문객( $x_1=1$ )은, 그렇지 않은 방문객( $x_1=0$ )보다 재방문 선택확률이 6.299배<sup>13)</sup> 증가하며(Table 6 참조),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방문객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개별 방문객의 재방문 선택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농산물 구매유무로 농산물을 구매하였을 경우( $x_2=1$ )가, 그렇지 않은 경우( $x_2=0$ )에 비하여 재방문 선택확률이 4.67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지역계획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산물이나 특산물의 판매가 단순히 농가주의 소득 향상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중시하는 도시민들의 재방문 비율, 혹은 지속적 방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목적은 체험이나 학습, 경관감상, 휴식 이외에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산물 구매유무 다음으로 재방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체류기간으로 나타났다. 체류시간이 5시간, 즉 반나절 이상인 경우( $x_3=1$ )는, 그 이하인 경우( $x_3=2$ )보다 재방문 선택확률이 4.5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따라서 실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의 61.5%가 반나절 이내의 방문객임을 고려할 때, 향후 재방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때 체류기간은 방문한 농촌지역 내에서의 체류기간을 의미하며 농촌여가 특성에서처럼 주변 관광지의 방문빈도가 높아질 경우, 해당 농촌지역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재방문 선택확률은 소요시간(편도)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요시간이 1단위(hour) 증가하면 재방문 선택확률은 약 0.493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예를 들어 소요시간이 2시간인 방문객의 재방문 선택확률이 1이라면, 3시간인 방문객의 재방문 선택확률은 0.493으로 감소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였을 경우로 전체 변수를 모두 투입하였을 경우와 차이가 있지만, 소요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방문 선택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여가 수요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방문객의 재방문 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농촌방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3개 지역의 실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3개 지역의 농촌 방문객들은 농촌거주경험 등 농촌연관성이 높고, 반나절 미만의 방문객이 전체 응답자의 61.5%, 당일방문객이 80.8%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 관광 수요를 분석한 기존연구(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3, 2004a)들과는 달리 숙박객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동일광역권이나 인근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었으며 편도 3시간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방문객의 재방문 선택확률은 방문 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체류기간이 길 경우, 소요시간이 짧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계획과 더불어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내체계가 명확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방문 선택확률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문객의 체류기간이 짧은 지역은 이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재방문 선택확률은 소요시간에 민감하므로 표적시장을 동일 광역권이나 근교 도시로 선정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농촌여가 시장에서 재방문에 대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계획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수요량의 주요 변수인 재방문에 대한 기초연구로 향후 농촌지역의 재방문비율을 늘릴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타당성은 높였으나, 표본의 크기가 작고 특정 지역, 특정시기에 한정된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로짓모형의 현실 검증과정이 없어 향후 이 모델을 실제 방문객에게 적용할 경우 모델적합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농촌여가 시장 유형별로 조사지역을 다양화·세분화하고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1) 중력모형은 물리학의 ‘두 물체의 인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상호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i지역에서 j휴양지로의 여행량(Qij)은 i지역의 특성(Pi)과 j휴양지의 매력도(Aj)에 비례하며, i, j지역 거리(Dij)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k는 상수, α, β, γ는 추정해야할 계수임).

$$Q_{ij} = k \frac{P_i^\alpha A_j^\gamma}{D_{ij}^\beta} \quad \text{또는} \quad Q_{ij} = k P_i^\alpha A_j^\gamma D_{ij}^{\beta-2}$$

주2) 여행비용모형에서 목적지수요량은 이동한 여행비용의 함수이며, 이용자가 먼 거리를 여행하여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까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WTP)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Q는 수요량, TC는 여행비용, X1, X2, Xn은 소득이나 시간 등에 대한 기타 독립변수의 평균값임).

$$Q = f(TC, X_1, X_2, X_n)$$

주3) 물리적 거리는 단거리 이용자에게 과대평가되어 실제거리보다는 인지적 거리(cognitive distance) 혹은 주관적 거리(subjective distance)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김사현, 2003). 이때 인지적 거리 혹은 주관적 거리는 ‘인지적 시간’ 혹은 ‘주관적 시간’과 밀접하므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주4) 물리적 거리 및 시간의 환산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거리 및 시간을 이용하나(김사현과 박세종, 2001), 본 연구에서는 농촌 방문객들의 71.7%가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a), 자가용 이동시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주5) 1회('02년): 화천 토고미, 진안 능길, 남해 다랭이 등(10개 지역)  
2회('03년): 홍성 문당, 이천 부래미, 양양 탁장사 등(10개 지역)  
3회('04년): 진안 능길, 이천 부래미, 남원 달오름 등(10개 지역)  
4회('05년): 태안 벚가리, 단양 한드미, 의령 산천령 등(11개 지역)  
(자료: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 추진단 도농교류 센터)

주6) 벚가리(2회), 부래미(1회), 능길(1회), 세심(1회)

주7) <http://www.nongchon.or.kr> (한국농촌공사 농어촌 종합정보 포털)

주8) 로짓모형에서  $\chi^2$  값은 상수만 포함된 모형의  $-2\text{LogL}$  값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2\text{LogL}$  값의 차이를 의미한다(홍세희, 2005).

주9) 적합성의 증가비율은 부분 F-검정 값의 분포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이 경우  $\chi^2$  값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므로 중앙값의 범위에 있는 30%로 선정하였다.

주10) 로짓모형에서 자유도는 상수만 포함된 모형(base model, null model)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모수차이로 이는 대부분 독립변수의 수와 일치한다.

주11) 호스머-레머쇼 테스트에 의한 적합도 검증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경우에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text{주12)} R_i^2 = \frac{x^2}{-2\text{Log}L_0} = \frac{x^2}{x^2 + -2\text{Log}L_A} = \frac{47.5}{47.5 + 136.7}$$

주13) exp(B)는 계수 B에 대한 지수함수이며 ex 라고도 표현한다. 교통수단의 지수함수는 exp(1.840)이며 이는 log2.178로 약 6.299정도이다.

##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2002), 레저행태 변화와 여가공간 조성 방안 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2. 김남조(2004),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관광현상 구성 요소를 이용한 농촌관광정책의 방향. 관광학연구, 28(1) : 263-281.
3. 김사현(2003), 관광경제학. 서울 : 백산출판사.
4. 김사현, 박세종(2001), TCM을 이용한 관광자원 가치의 추정과 비교. 관광학연구, 25(3) : 13-26.
5. 김사현, 김재영(2002), 단일 및 다목적지의 여행수요함수 비교분석 : 여행비용모형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6(3) : 133-149.
6. 김성진, 안건용(1995), 소비자선택행동 모형화: 선택이론/모델의 검토와 적용. 한국조경학회지, 23(3) : 59-68.
7. 김영석(2002), 사회조사방법론 : SPSS WIN 통계분석. 서울 : 나남출판.
8. 김영우(2005),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한 해외여행자의 관광동기 및 위험지각이 관광유형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9(3) : 291-313.
9. 김재석, 김재영(2002), 단일 및 다목적지의 여행수요함수 비교분석. 관광학연구, 26(3) : 133-149.
10. 김정근(1998), 여가태도,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레저의 연구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1(2) : 222-236.
11. 김현, 이희찬(2004), 농촌관광 수요모형 연구. 관광학연구, 19(2) : 131-146.
12. 농림부(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과천 : 농림부.
13. 농림부(2005),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자원활용과 연계한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 개발. 과천 : 농림부.

14.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3), 녹색관광 실태 및 선호도 조사. 수원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15.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a), 농촌관광 실태 및 선호도 조사 연구. 수원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16.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b),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수원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17. 박덕병, 이민수, 김정섭(2004), 농촌관광 시장 세분화 연구. 관광학연구, 28(2) : 193-212.
18. 윤희정, 임승빈(2004), 녹색관광 자원 유형분석 및 국내 적용가능성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2(4) : 49-58.
19. 윤희정(2007), 지역계획을 위한 도시민의 농촌여가 수요와 선택속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 윤희정, 임승빈(2008), 도시민의 농촌지역 여가선택속성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4(6) : 66-77.
21. 이주희, 한상열(2004), 중력모형을 이용한 산악형 국립공원의 수요모형 개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8(1) : 45-49.
22. 임형순(1998),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당일여가 관광활동 선택분석. 관광학연구, 22(2) : 375-381.
23. 조광익, 손대현(1999), 여행비용모형(TCM)을 이용한 관광자원의 수요분석. 관광학연구, 22(3) : 113-133.
24. 조유현, 이정인(2003),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8 : 125-146.
25. 차동욱(2003), 관광농원 방문자의 재방문 결정요인 분석. 농촌사회, 13(2) : 75-94.
26. 최열, 김종성(2003),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을 이용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8(7) : 69-80.
27. 최열, 유숙향(2005), Mixed Logit Model을 이용한 주거와 고용의 결합입지 선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0(1) : 35-46.
28. 황희연, 오용준(2005),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지적정 평가지표 개발과 효과분석: 농산촌형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0(2) : 93-107.
29. 홍성권(1994), 서울시외 근교에 위치한 당일여가용 Recreation 시설의 선택행동 추정에 관한 연구: Generalized Logit Model의 적용. 한국조경학회지, 22(3) : 1-12.
30.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 교육문화사.
31. Clawson, M., J. L. Knetsch(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Baltimor: John Hopkins Press.
32. Fleischer, A., A. Tchetejik(2005), Does rural tourism benefit from agriculture?. Tourism Management, 26 : 493-501.
33. Han, Z., R. Durbarry, M. T. Sinclair(2006), Modelling US tourism demand for European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27 : 1-10.
34. Hong, S., J. Kim, H. Jang, S. Lee(2006), The roles of categorization, affective image and constraints on destination choice: an application of the NMNL model. Tourism Management, 27 : 750-761.
35. Hotelling, H.(1947), The Economics of Public Recreation. The Prewitt Report. Washington : National Park Service.
36. Mazurskey, A.(1989), Past Experience and Future Tourism Decis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 300-329.
37. Moscardo, M.(1986), Mindful Visitors, Heritage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 : 24-32.
38. Murphy, A., P. W. Williams(1999), Attracting Japanese tourists into the rural hinterland: implications for rural development and planning. Tourism Management, 20 : 487-499.
39. Pina, I. P. A., M. T. D. Delfa(2005), Rural tourism demand by type of accommodation. Tourism Management, 26 : 951-959.
40. Ragheb, M. G.(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 138-149.
41. Riddick, C. C.(1986), Leisure satisfaction precurs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 259-265.
42. Seddighi, H. R., M. W. Nuttall, A. L. Theocharous (2001), Does cultural background of tourists influence the destination choice? an empirical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political instability. Tourism Management, 22 : 181-191.
43. Torkildsen, G.(1992),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London : E & FNSpon.

\* 접수일 : 2008년 4월 22일

■ 3인 익명 심사필